

기존 혈관확장술로 실패한 동정맥루 협착증의 Cutting Balloon을 이용한 성공적 치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방사선과학교실*

김영수 · 김영옥 · 송하현* · 윤선애 · 신미정 · 김병수 · 송호철 · 최의진 · 장운식 · 방병기

서 론 : 최근 기존의 혈관확장술에 반응하지 않는 견고한 동정맥루 협착증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으로 cutting balloon을 이용한 혈관확장술이 효과적으로 임상에 이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보고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저자들은 최근 기존의 혈관확장술에 반응하지 않는 동정맥루 협착증 환자 2명에서 이러한 cutting balloon을 이용한 혈관확장술로 성공적으로 치료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1 : 43세 남자 혈액투석 환자가 요골동맥-요측부정맥 동정맥루의 문합부에 협착증이 있어 3개월 전에 혈관확장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환자는 혈관확장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별다른 문제없이 혈액투석을 받아오다 내원 2주전에 혈류량 감소로 정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같은 부위에 재협착이 발견되어 혈관확장술을 재시행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풍선도관으로 협착부위의 혈관확장을 시도하였으나 확장되지 않아 cutting balloon을 이용하여 재시도한 결과 기존의 풍선도관에 반응을 보이지 않던 협착부위가 성공적으로 확장되었다. 환자는 시술 후 곧바로 동정맥루를 통한 혈액투석을 시행한 후 퇴원하였으며 3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동정맥루의 기능은 잘 유지되고 있다.

증례 2 : 71세 남자 혈액투석 환자가 동정맥 문합부 근처의 정맥에 심한 정맥협착증이 발견되어 혈관확장술을 위해 입원하였다. 기존의 풍선도관 (지름 6 mm, 길이 40 mm)을 이용하여 최대 허용압력인 20기압으로 팽창시켰으나 혈관확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다시 cutting balloon (지름 5 mm, 길이 40 mm)을 협착부위에 위치한 후 풍선을 6기압까지 팽창시키자 기존 풍선 도관에 반응을 보이지 않던 협착부위가 완전하게 확장되었다.

결 론 : Cutting balloon을 이용한 혈관확장술은 혈액투석 환자에서 기존의 혈관확장술에 실패한 동정맥루 협착증의 치료에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사료된다.